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2025. 11. 10(월) 14:00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 건설관계자 소통의 장 마련

- 건설현장 추진사항 공유 등 상시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마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장기욱)는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관계자 협의체 회의를 11월 11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협의체는 건설관계자들과 상시 협조 및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시 유기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차질없는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진해신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부건소(남방파제, 투기장1·2공구, 방파호안1·2공구), BPA(북컨 배후단지, 컨부두(1-1), (1-2))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주요 공종인 해상장비(DCM*) 투입에 따른 작업선과 통항 선박과의 충돌 등 해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과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반부패·청렴도 제고 등 건설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 수칙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 DCM(Deep Cement Mixing Method) : 심층혼합처리공법
→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시멘트 계열 고화재를 지반에 주입·혼합하여 지반을 강화하는 공법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은 지난 7월 어업보상 약정 체결 이후 본격 착공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2029년까지 남방파제, 투기장, 방파호안 등 외곽시설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부산항만공사에서는 2030년까지 1단계로 컨테이너 부두 3개 선석을 우선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 장기욱 소장은 “진해신항 개발사업의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건설관계자들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담당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책임자	과 장	우봉출	(051-609-6740)
		담당자	사무관	황의성	(051-609-6741)
		담당자	주무관	이호준	(051-609-6746)

참고 **진해신항 개발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선박 대형화, '컨'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대규모 '컨'부두**를 확보하고,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물류 허브항만** 육성

○ (구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측(모든 구역 진해지역)

○ (특징) **대수심·대용량*** 부두, **항만자동화** 등

* (**진해신항**) 수심 23m / 400m(L)×800m(B), (**신항**) 수심 17m~18m / 350m(L)×600m(B)

구분		1단계(현행 기준)	2단계	전체
총사업비		**7조 9,096억원** ·재정 2조 7,876억원 ·민자 5조 1,220억원	**4조 7,283억원** ·재정 1조 2,641억원 ·민자 3조 4,642억원	**12조 6,379억원** ·재정 4조 517억원 ·민자 8조 5,862억원
총 사업기간		'22.~'31.	'32.~'40.	'22.~'40.
공급 시기	'30년까지	3선석	-	3선석
	'32년까지	6선석	-	6선석
	장래	-	6선석	6선석
사업 내용	'컨'부두	**9선석** (3만TEU급×9)	**6선석** (3만TEU급×5, 피더부두×1)	**15선석** (3만TEU급×14, 피더부두×1)
	방파제	1.4㎞	0.8㎞	2.2㎞
	배후단지	788천㎡	-	788천㎡

<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선석 위치도 >

